

청소년도서의 몇가지 관점

英·美 도서관의 기준과 프로그램들

李重漢

출판평론가 · 서울신문 논설위원

필자메모

지난해 유네스코의 세계문학선에 관한 주제로 ㉠을 쓴 뒤 이 시리즈는 한동안 쉬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었다. 그 사이 「출판저널」誌의 특집들이 계속 있었고 또 본인도 그 특집들에 이런저런 글들을 쓰게 되는 입장이 되어 중복적인 게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리즈를 그래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또 계획했던 목표는 이루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 너무 사이가 뒤틀던 것을 무릅쓰고 다시 잇고자 하나까 먼저 썼던 것을 채우는 ㉡ 부분이 느닷없이 보이기도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왕 동떨어진 것은 잠시 쉼 채로 더 두어두고, 보다 시의적인 항목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까 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점 양해를 구해 둔다.

근자에 우리는 비교적 '청소년도서'라는 말을 빈번히 쓰고 있다. 눈에 띄게 향락화·퇴폐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피할 수 없이 청소년들이 물들어감과, 또 청소년자신의 구체적인 퇴폐화·폭력화 사례까지 줄을 잇고 있음에 대해 이제는 건전한 청소년과 또 건전한 청소년을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무심한 사람들에게까지 피부로 느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이라도 읽혀야 하는 상식적이면서도 원칙적인 문제에 사회도 정부도 어느때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됐다.

그렇다고 느닷없이 이 일에 진전을 이룰 수는 물론 없다. 무엇보다 어떤 책을 읽혀야 할지의 기준들이 아무데서고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고, 특히 이런 일을 맡아야 할 도서관의 능력이 거의 야만적으로 백지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은 청소년에게 마땅한 도서 그 자체가 간행되어 있지 않다. 10대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이란 지금 우리에게서 단지 진학시험공부를 하는 연령층의 '차압당한 인생'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소년 책은 또 10대가 책이나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는 것으로 규정되는 조건에서의 책이기 때문에 출판사나 사회나 가정에서 완전히 무의미한 인쇄물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나는 이 사태를 따지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나마 도대체 청소년도서관 어떤 것이어야 하고 또 어떤

기준들 속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냐는 정도는 알아보아야 할 것 아니냐를 말하려 할 뿐이다.

미국의 '10세대도서관 분리운동'

세계에는 분명히 '어린이도서관'이라는 형식이 있다. 그저 포괄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줍어하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 '이민 온 어린이를 위한 도서' '정신적 장애자나 지체부자유 어린이를 위한 도서'들까지 분류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들이 사방에 있다. 단지 아직은 없으면서 이것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을 위한 도서서비스' 같은 것이 있기는 하다.

이러한 노력의 가장 저명한 사례는 英國의 안네 우드(Arne Wood)가 1965년에 시작한 '어린이 그룹을 위한 책들'(Books for Children Group) 운동이다. 그녀는 중학교 교사로서 어린이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너무 모르고 자란다는 생각을 시작했고, 이로부터 문고본 일람표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아가 그녀의 관심대상은 어린이로부터 10대의 집단으로 이동했다. 이 노력은 부모나 저작자나 출판사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季刊「당신의 아이를 위한 책들」(Book for Your Children)을 간행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했다. 그리고 이 운동은 하나의 전국적 단체운동으로까지 성취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우선 이러한 간행물자료들을 검토해 보아야 우리의 이야기도 조금은 틀을 잡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그 많은 목록들을 점검해 옮길 수는 없다. 그저 우리도 알아볼 수 있는 목록을 몇개 들면서 그 인상을 설명한다면, 대담하게도 「기네스 북」같은 것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같은 감각으로 「백과사전」도 들어 있고 「세익스피어」나 「그리스神話」나 「아더왕과 원탁기사」 「로빈슨 크루소」 같은 것도 물론 들어 있다.

그러나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러한 노력이 미국에 의해서 더 본격적으로 확대돼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10세대도서관 분리운동'으로 일컬어진다. 링컨, 웨스트 노우드, 램베스 도서관들이 본격적으로 10세대도서관 프로그램들을 분리하여 특설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선 대표적인 경우들이다. 링컨도서관의 사례를 본다면 무엇보다 10세대도서관에 관한

청소년도서프로그램은

언제나 변화하는 목록, 언제나

보다 나은 것으로 교체되는 목록,

그리고 청소년 자신에 의해

잘 선택돼야 하는 목록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같은 목록만으로

청소년도서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도서관측의

진지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기준은 '성숙한 도서'라는 것 뿐이다. 어린이용 도서와 성인도서 사이에서 어떤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쪽으로도 성숙한 내용이면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그 사회가 가진 최선의 내용물이 바로 자라나는 새 세대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이면서도 시행하기는 별로 쉽지 않은 상식적 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목록으로 말해 켈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邦譯題), 골딩의 「파리대왕」같은 것들이 뿔혀진다.

그러나 10세대도서관 특설프로그램에 있어 더 인상적인 것은 책의 목록만으로 이 프로그램은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링컨도서관 사례를 계속한다면 10세대도서관이 개관되는 시간에 온종일 10대가 좋아하는 음반을 듣든가, 또는 책만을 놓아두고 도서관직원은 아예 보이지 않게 철수시킨다가 하는 세심한 환경을 조립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으로 다시 이전되어 예컨대 스웨덴 공공도서관에서는 10대를 위한 영화·패션·스포츠 강의를 부설하고, 핀란드에서는 청소년연극시리즈를 도서관내에서 실시한다.

캐나다 토론토도서관의 방법은 더 적극적이다. 성인도서열람실과 10대열람실 사이에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마련한다. 10대도서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로부터 성인도서로 보다 빨리 진입할 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그 목표이다.

이러한 노력은 더 전향적으로 '보다力動的인 문화센터化'의 개념으로 진전된다. 10대도

서관이 개관되는 시간에 혹시 10대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도서관 직원들이 전부 나서서 누가 어떤 도움을 원하는가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 도와주는 원칙 같은 것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하나의 희망이 아니라 그렇게 실시되고 있는 사실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시도 속에 도서관의 도서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이제 더하여 보기로 하자.

이 원칙들은 「도서선택원칙에 관한 체크리스트」(Mary Dunean Corter & Wallace John Bonk)라는 자료 같은 것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는데 우선 눈에 띄는 것에 이런 것이 있다.

청소년도서 선택의 기준

"10대의 소년소녀는 자기들의 읽을 자료를 선택하는데 참가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이 年代의 청년들은 자기들의 영역에서 논쟁이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결정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구입하라. 그러나 청년용(Juvenile Books) 도서를 구입하라는 말은 아니다. 최상의 것 이외에는 모두 피하라. 단지 모든 시대를 통해서 훌륭한 도서를 주라"

이러한 기초적 관점들을 뒷받침하는 일반도서관의 선택원칙들에도 많은 기준들을 볼 수 있다.

"실제의 요구에 맞추어 자료를 비치할 것"

"독자들로부터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가는 그 자료가 인간적 노력 즉 인간적인 발전, 행복을 어느 정도 조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도에 의해 측정하라"

"지역사회를 조사해서 그 사회의 사람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과 그 사회로부터 현재 요망되고 있는 것을 비교하라"

"그도서를 구입했기 때문에 새로운 요망이 보다 좋은 도서를 입수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이상 구입하지 말라"

"원칙적으로 읽히지 않는 훌륭한 책보다는 정도가 낮더라도 독자가 있는 책을 구입하라"

"독자없는 10종의 책을 1권씩 비치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요망이 있는 건전한 도서를 複本으로 10권을 구입하는 것이 낫다."

“표준적 저작 중에서도 우수한 版을 선택하라”

“적극적인 이용을 목표로 선택하라. 그것이 단순히 좋은 책이라는 것만이 아니고 무엇보다 좋은 책인가 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도서는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최상의 것이라 말하는 것이 ‘害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그 책의 有用性을 다시 물으라”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있는 論題의 것이라면 당연히 반대 의견의 자료도 갖추어야 한다”

“논쟁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만일 그 문제가 가지는 여러가지 측면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은 그 자체의 존재이유의 중요한 하나를 잃는 것이 된다.”

이 리스트를 상당부분 여기에 옮기는 것은 바로 이 면밀성과 철저함의 체크리스트들이 청소년도서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며 또한 그 기준들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에 의해서 청소년의 책은 ‘언제나 변화하는 목록’이며 동시에 ‘언제나 보다 나은 것으로 교체되는 목록’이고, 또 한편 ‘청소년 자신에 의해서 더 잘 선택되어야 하는 목록’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견본을 제시해 두는 것은 좋을 것이다. 다음 자료는 英國의 자료인데, 英國의 어린이도서관 운영을 위해 씌어진 안네 프리트(Anne Fleet)의 저서에 추천되어 있는 10대의 간결한 도서목록이다.

따라서 版本들은 전부 런던版이고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전반을 포괄하는 15권의 목록이다. 굳이 원제의 번역은 하지 않는다. 어중간한 우리말 번역이 책의 내용을 전달해주는 것이 않기 때문이다. 단지 邦譯이 있는것만은 표기해 둔다.

- ① Appiah, Pegge 「Tales of An Ashanti Father」
- ② Blisheu, Edward 「Robin Hood」(로빈 훗)
- ③ Boston, Lucy M. 「The Castle of Yew」
- ④ Briggs, Raymond 「First Up Everest」
- ⑤ Briggs, Raymond 「Shackleton's Epic Voyage」
- ⑥ Golding, William 「Lord of the Flies」

(파리大王)

- ⑦ Hodges, Walter 「Shakespeare's Theatre」
- ⑧ Lanski, Lois 「Papa Small」
- ⑨ Lewis, C.S.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 ⑩ MaeNeil, Janet 「Dragon Come Home」
- ⑪ Ness, Evaline 「Mr. Miacca in the Rye」
- ⑫ Salinger, J.D. 「The Catcher in the Rye」(호밀밭의 파수꾼)
- ⑬ Seuss, Dr. 「The Cat in the Hat」
- ⑭ Sutcliffe, Rosemary 「Truce of the Games」
- ⑮ Tresselt, Alvin 「Wake Up Farm」

한마디 더.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과제인 청소년도서를 출간케 하고 보급케 하느냐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어떻게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진지한 정상화를 이룩해야 하느냐가 더 큰 과제를 우리가 먼저 깨닫지 않는 한 청소년도서문화는 결코 개화되지 않을 것임을 좀더 분명히 깨닫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화번호 변경 안내

폐사의 전화번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시고 귀사의 보다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비 고
▶ 변경후 730-5274/7	720-1811/1816
▶ 720-1811/1820	(6대 증설)
▶ 730-8171/5	중전과 동일
▶ 730-8171/5	
FAX 730-5278	
▶ 720-1821	

荷山出版社
信興印刷株式會社
代表理事 朴忠一

작품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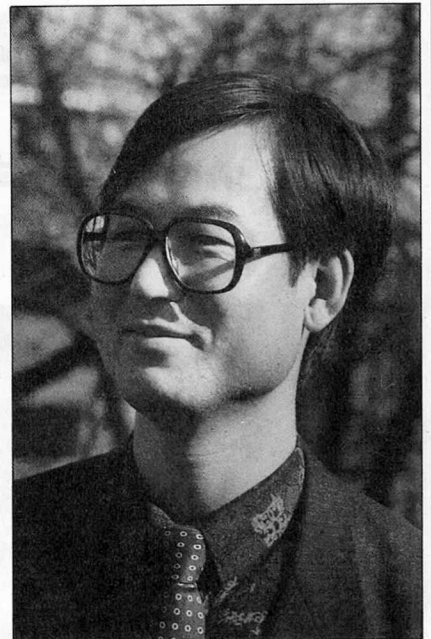
농부의 딸이 걷는 의식의 성장과정

장편 「세상 속으로」

金鍾星

소설가

산촌에서 성장해 도시로 간 여주인공의 밑바닥 삶을 통해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과 그들의 의식적인 성장과정을 그려보려고 한다



1986년 「동서문학」 3월호에 발표한 중편 「검은 땅 비탈 위」는 나의 문단 데뷔작이다. 「炭」 연작의 대단원을 이루는 「塊炭」, 「落炭」, 「盜炭」을 한데 묶어 발표했던 것이다.

문단 데뷔를 전후한 3·4년 동안 나를 사로잡았던 탄광촌은 제작년 가을 첫 창작집 「炭」을 출간함으로써 일단 정리를 한 셈이었다. 「炭」에는 광산촌 언저리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광부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첫 창작집을 펴낸 이후, 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것이 「세상 속으로」이다. 나는 이 작품을 통해 농부의 딸이 사회구조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그려보려고 한다. 말하자면 일종의 성장소설이다.

나는 소설이 당대의 삶으로부터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설은 수기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소재라도 언어라는 그릇에 담겨지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을’ 썼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썼느냐도 중요하다.

「세상 속으로」는 전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강원도 산촌이 무대가 된다. 강원도는 산비탈과 계곡이 많은 곳이다. 지금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그 자취가 흔적조차 없어졌지만, 너와집, 물레방아 같은 화전민들의 ‘생활의 場’이 내가 유년기를 보내고 있을 때만 해도 온전하게 산비탈에 자리잡고 있었다. 여주인공 필순은 산줄기에 희끗희끗하게 남아 있는 잔설처럼 화전민의 흔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가매안에서 들쭉처럼 자란다. 바람소리, 물소리에 묻어오는 흙냄새를

맡으며 국민학교를 마친 필순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만다. 그녀는 수학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는 동해안의 항구도시로 가출한다.

제2장은 항구도시의 식당에서 일하던 필순이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차 주인집을 떠나 서울행 야간열차를 타는 것으로 시작된다. 필순은 버스안내장이 되어 기름밥을 먹게 된다.

제3장은 버스안내장 생활을 못하게 된 필순이 봉제회사에 취직해서 이 사회의 불평등구조를 어렵풋하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필순은 야간학교에 들어간다. 어떡하든지 배워야만 사람대접받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야간학교가 사실은 노동자들의 향학열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울리고,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도구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4장은 제본소로 일터를 옮긴 필순이 사회악에 눈을 차츰차츰 떠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마침내 필순은 구로항쟁에 참여한다.

이러한 큰 줄거리를 가진 「세상 속으로」는 나이 어린 여성들의 숨통을 죄는 사회의 교육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과 잘사는 사람의 구별없이 모든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노동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슬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부터 나는 노동계급과 교육문제에 관한 소설을 써보리라 마음먹었다. 이 작품은 그러한 내 생각의 첫 시도이다.